

비즈쿨 창업동아리 ① 비즈-플라워

# 창업동아리서 기업가 精神 배워

## 포천중고 비즈쿨 창업동아리 운영으로 학생 비전 제시

포천종합고등학교는 2005 경기도교육청 지정 비즈쿨 연구학교다. '웰빙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한 기업가 정신 함양이라는 주제로 올 한해 포천종합고등학교에서는 양계, 양돈, 제빵, 솜공예, 컴비전, 핸드메이드, 비즈-플라워, 웰빙라이프 등 8개 창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학생들의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창업동아리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교육효과와 비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포천종합고등학교는 2005 경기도교육청 지정 비즈쿨 연구학교다. '웰빙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한 기업가 정신 함양이라는 주제로 올 한해 포천종합고등학교에서는 양계, 양돈, 제빵, 솜공예, 컴비전, 핸드메이드, 비즈-플라워, 웰빙라이프 등 8개 창업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이광호 포천중고 교장과 비즈-플라워 동아리 회원들)

'비즈-플라워' 창업동아리를 만난 것은 지난 13일 일동종합고등학교 제7회 창계 축제 현장에서다. 이날 포천종합고등학교 '비즈-플라워' 창업동아리가 창계축제를 특별초청된 것이다. 더불어 아직 기획단계에 있는 일동종합고등학교 창업동아리의 미래를 미리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학교간 연계구상도 높게 평가되었지만 학생들의 비즈공예 수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비즈-플라워' 창업동아리(회장 임혜은, 3학년)는 현재 30여명의 학생들로 구성돼 있다. 지도교사는 한은경 실과기획부장이다. 한 교사는 비즈쿨 담당 부장이기도 하다.

비즈는 20 종류가 무궁무진하고 플라워는 20여종을 제작하고 있는 '비즈-플라워' 창업동아리 임혜은 회장은 "매주 목요일마다 회의를 통해 작품제작의 방향을 설정하고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며 "대학 졸업후에 취업이 안되면 비즈-플라워 삶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호 포천종합고등학교 교장은 "반대기 장사와 백화점 주인의 차이는 기업의 규모에 있다"며 "창업동아리 활동으로 창업정신을 길러 직접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가계산 등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사업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경 '비즈-플라워' 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직접 뛰어다녀야 하며 학생들에게 교육할 비즈공예나 플라워 등을 사전에 연수를 통해 익혀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산은 비즈쿨 예산 20만원과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60만원을 받아 모두 80만원으로 재료가입비, 견학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임혜은 회장은 "공부하면서 비즈도 하고 플라워도 할 수 있어서 좋다"며 "다른 학생들에게도 권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은경 담당교사는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들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포천의 들꽃을 소재로 하여 '비즈-플라워'를 하고 싶지만 업무가 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획을 위해 '비즈-플라워' 창업동아리는 다양한 체험을 실시한다. 백화점을 방문해 비즈공예 전시품을 통해 디자인과 디스플레이 등을 확인하고 어린이대공원 꽃전시회장을 찾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비즈-플라워' 창업동아리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가장 힘들게 생각

하는 것은 역시 대학 입시다. 그러나 창업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목표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학입시의 관문이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운중성의 미국어 따라하기

9. 포도주 한 잔 하지 그러세요?  
Why don't you have some wine?  
와이더너츄 헤브섬와인?
- \*안마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No, thanks.  
노우팽스
10. 누가 이 병을 깼나요?  
Who broken this bottle?  
후브르큰 디스바틀?
- \*마크가 그랬어요.  
Mark did it.  
마크 디잇.



\*문의: 윤중성 (017-723-4977) colyoon@nate.com

###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부모' 특강

가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주최, 이영자 박사 초청



가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2시 다목적실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부모'를 주제로 자녀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 (왼편은 이영자 박사)

가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2시 다목적실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자존감을 키우는 부모'를 주제로 자녀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는 아침고요수목원 원장인 이영자 박사가 맡았으며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매우 유익한 강의를 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행사는 가산초등학교, 가산초등학교 어머니회, 건강과 생활이 후원해 마련됐다.

특강에서 이영자 박사는 "자존감이란 사람이 갖는 심리적으로 든든한 마음이며 스스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치감과 소속감, 자신감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존감의 필수요소는 부모와 자기평가라고 강조하고 아이들은 2~3세 사이에 자존감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부모의 아이에 대한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우느냐 실패로 인도하느냐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참석한 학부모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이은미 총무는 "그동안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보다 과격하고 폭력 있는 교육을 못한 부분이 있어 후회했다"며 "앞으로 아이들에게 오늘 느낀 바를 제대로 실천해 옮겨야겠다"고 다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교사 탐구 7 포천종합고등학교 실과기획부장 한은경

"학교기업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타인을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 생산, 홍보, 판매, 평가하면서 직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초 및 전문직업능력을 습득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고등학교에서의 창업동아리 활동은 학교기업 체험 프로그램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은 2005년 경기도교육청 지정 비즈쿨 연구학교 포천종합고등학교 한은경(43·사진) 실과기획부장이 '웰빙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한 기업가 정신 함양이라는 비즈쿨 연구학교 운영계획서에서 실제로 고등학교 창업동아리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한 교사는 '비즈쿨(BizCool)'은 비즈니스(Business)+스쿨(School)의 합성어로 "비즈니스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는 의미로 이는 선진국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프로그램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한국 현실에 맞게 재창조한 청소년 창업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수원여고와 공주사대를 졸업한 후 지난 85년3월1일 교직에 임부하여 올해 21년째 실과교사로



### 가슴으로 학생을 대하고, 그들의 가슴에 호소하며, 그들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것이 진정한 교육

상업과목을 강의해 온 한 교사가 포천종합고등학교에 부임한 것은 2003년3월1일이다.

한 교사는 울추 실과기획부장을 맡고부터 '우리 실과교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실과교과 수업이 어떤 교육활동이 있을까?'를 생각해 본 중 인터넷정보와 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고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창업동아리' 운영을 계획했다.

특히 한 교사는 인터넷 정보과의 본질인 상업 계열과 부합되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창업동아리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고자 했다. 학교수업은 틀에 박힌 교실수업이라는 기존인식을 깨어주는 체험위주의 산 교육과 더불어 활기가 넘치는 시장견학, 현장 실습, 대학 방문, 선배님 직장 방문 등을 통해 학업 의욕을 높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키워주고 싶었다고 한다.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단지 만나서 대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기업의 CEO가 되어 아이템을 정하고 제품을 디자인하며 제품 생산, 광고, 판매, 유통 그리고 A/S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상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정신과 창업가 정신을 길러주어 미래의 어떤 난관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자신감과 의지력을 길러주고자 한다.

한 교사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부터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종전의 획일화된 이론위주의 학습이 아닌,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모든 활동을 학생위주로 편성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획, 학생들이 선호하는 활동, 학생들이 선호하는 행사 등으로 운영해 나갔다. 당연히 학생들의 반응도 아주 좋았다. 너도 나도 함께 하고자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나서는 학생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교사는 지난 20여년의 교사생활을 통해 학생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함께 호흡하며 열심히

터득하는 것은 '가슴으로 학생을 대하고, 그들의 가슴에 호소하며, 그들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정의했다.

한 교사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개성과 생활방식이 있듯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터득한 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인자한 눈길과 따뜻한 가슴, 그리고 자상한 한마디로 그들을 보듬어 안으며 그들의 가슴에 샘솟는 의욕과 도전정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창업가 정신을 심어주고 싶어서 창업동아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 교사는 창업동아리를 시작하기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태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실업계 학생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의욕 없이 지내는 학생들에게 좀더 밝고 환한 웃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다양한 체험에 의한 인목을 키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한 것이다.

그 프로그램이 바로 신나는 창업 동아리 비즈쿨'으로 학생들은 지난해 3월부터 대학방문, 시장 견학, 용돈 기입장 쓰기, 현장 실습, 창업 도서 읽기, 지체요양원 봉사활동, 선배님 직장 방문과 비즈공예 단계별 비즈니스 체험을 시도했다.

이같은 체험결과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지난해 보다 성적이 향상된 학생이 68.7%로 많은 향상을 보였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업마인드가 생겼다고 답한 비율이 약 94%로 창업에 대한 인식과 창업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학생들은 지난해 1년간의 동아리 활동으로 '나 혼자만 아닌 우리 동아리와 함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한 활동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픈 도전정신을 갖게 되었다. 실제로 고등학생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고 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견인차 역할에 나서는 한은경 교사의 모습에서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제자사랑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21C 포장의 새바람 '은창수출포장'

☞ 찾아오시는 길

★ 생산 품목  
내수용, 수출용, 식품용, 공업용, 농산물, 가구 등 다수

★ 박스 종류  
골판지박스, 톨박스, 컬러박스, 종이박스

대표 이희선

(주)은창수출포장 EUNCHANG.co.kr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2리 645-3  
전화 : (031)534-5753~5 / 팩스 : (031)534-5756